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설명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20. 1. 21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부 건설산업과	담당자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임종채, 주무관 권영일 ·☎ (044) 201-3542, 3543
	고용부 산업안전과	담당자	·과장 고광훈, 사무관 류경호, 주무관 김영남 ·☎ (044) 202-7725, 7728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

- 전체 1,200여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체 특별점검
- 허위 장비 등록 및 부실한 점검 기관에 대한 엄중 처벌

□ 정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고용부, 관련 산하기관 합동\*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.

\* 국토부 및 지방청, 고용부, 시설안전공단, 교통안전공단, 안전관리원 등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'19.12월 기준,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-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현장설치 시에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.

\* 최근 사고장비와 동일한 러핑형 소형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중점점검

□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전국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.

- 이번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, 조종사 관리·운영 실태,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,
  -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(설치)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  
-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,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,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, 장비 등록말소, 벌점·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.
  - 또한,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  
- 한편,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\*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하여 동일기종 장비(4대)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 하였고,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전부 말소조치토록 하였다.
  - \* '19.11.30.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인접건물 및 도로로 추락
  
- 또한, 지난 1년간(18.11~19.12)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 하여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말소되었고, 부실한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.
  
-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“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,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,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임종채 사무관(☎ 044-201-3542),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류경호 사무관(☎ 044-202-77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